

### ▶ 국내레지던시 프로그램 "IR-인터커넥티드" 결과보고전+오픈스튜디오

원곡동과 반월, 시화공단을 대상으로 2달 동안 리서치활동을 펼쳤던 입주작가들의 창작과정과 작업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와 결과보고전이 공단스튜디오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드어스 두 곳에서 진행됐다. 이 전시를 통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리서치 활동과 거리 퍼포먼스 등의 작업과정을 소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국내레지던시 결과보고전시 + 오픈스튜디오 관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드어스, 공단 스튜디오)

### ▶ 국내레지던시 프로그램 "IR-인터커넥티드" 작가와의 대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IR-인터커넥티드 프로그램의 특성을 배경으로 한 작가들의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의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원곡동이란 다문화지대와 반월, 시화라는 공단지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의 작업으로 끌어들이었는지를 발표하고 각 작가들과 매칭된 비평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국내레지던시 작가와의 대화 모습 (한신 외국인노동센터)

### ▶ 국제, 국내 레지던시 창작워크숍

#### - 국내레지던시 작가 : 김은형 "퍼포먼스 - 1분"

국내 레지던시 입주작가 김은형의 퍼포먼스가 지난 달 "칼라터" 퍼포먼스에 이어 원곡동 국경없는마음 일대에서 이번 달 3일에 벌어졌다. 이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한 5명의 국제레지던시 작가들(헤니슨, 로사나, 윌리엄, 코타, 아스민)과 함께 지난 칼라터 퍼포먼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읽으면서 걸거리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김은형 작가는 리드어스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창작활동을 위해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받게 된 원곡동의 인상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 - 국제레지던시 작가 : 아스민 자한(방글라데시) "Get green the world"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아스민 자한의 퍼포먼스가 원곡동 국경없는마음 일대에서 이번 달 8일에 벌어졌다. 아스민은 특유의 여성적 시선을 통해 사회적 이슈들에 개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비닐 소재의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리에서 행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환경오염문제와 이에 대한 비닐봉지 사용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

#### - 국제레지던시 작가 : 라우 후 싱, 해니슨(홍콩)&로사나 오스타드(이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과 로사나 오스타드의 창작퍼포먼스가 원곡동 공원에서 14일에 열렸다. 해니슨 작가의 중국 정원을 토대로 만든 평상 위에서 로사나 작가의 차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평상과 차를 매개로 원곡동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 - 국제레지던시 작가 : 라우 후 싱, 해니슨(홍콩) "Can you smile for me and for yourself?"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라우 후 싱의 퍼포먼스가 결과보고전 오픈 후인 20일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다. 작가는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지하철 안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당신과 나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나요?" 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검 박스를 건너줄모로 잠시나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다.



국내레지던시 김은형작가의 퍼포먼스 모습 "퍼포먼스 - 1분"



국제레지던시 라우 후 싱, 해니슨 (홍콩) 작가의 퍼포먼스 모습 "Can you smile for me and for yourself?"



국제레지던시 아스민 자한 (방글라데시) 작가의 퍼포먼스 모습 "Get green the world"



국제레지던시 라우 후 싱, 해니슨 (홍콩) & 로사나 오스타드 (이란)